

할렐루야~!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빠올로 선교사입니다.

새로운 사역지 산타카타리나(santa Catarina)에서 처음 인사 드립니다.

이곳으로 옮긴지 이제 두달이 조금 넘었습니다. 새로 지내는 거처에 침대도 없어서 몇일은 바닥에서 자고 그러다 천천히 물건들을 채워가며 이제는 좀 사람 사는곳이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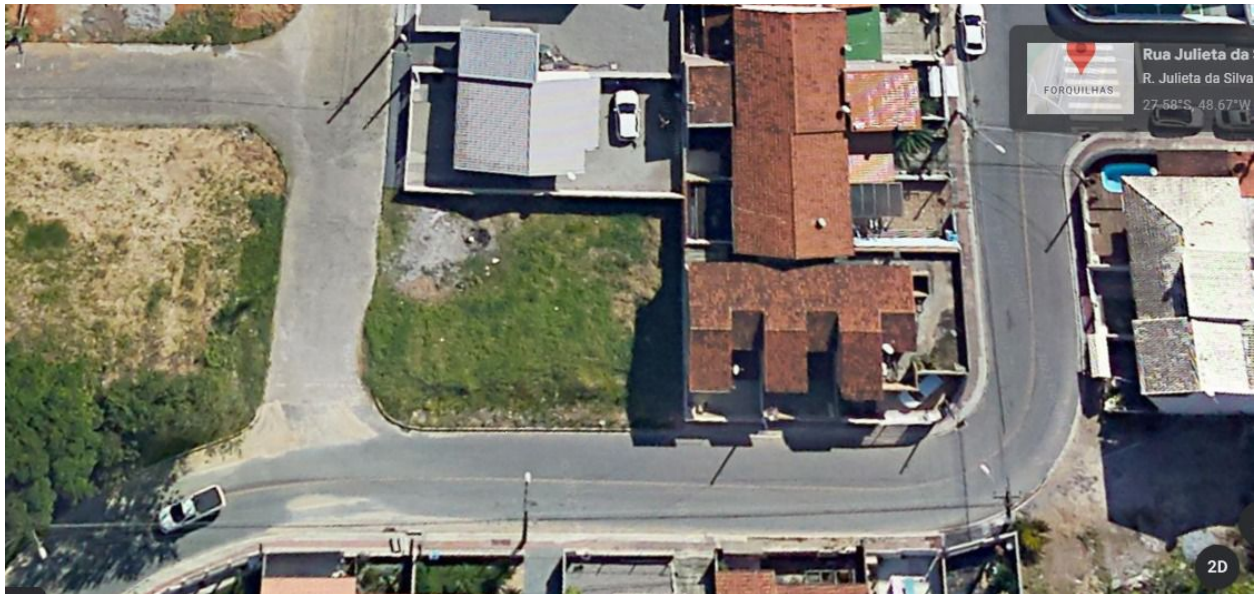


저와 같이 이곳까지 동행해준 에벨톤은 이제 얼마 안남은 신학교 공부를 마치기위해 마나우스로 돌아갔구요. 저는 두달동안 이곳을 다니며 새로운 장소를 물색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먼저 하고자 하는 사역은 교회 사역보다는 일단 어린이와 청소년 사역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체육선교로 일단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러기 위해선 운동할수 있는 장소가 필요합니다. 여기저기 다니며 알아 보았지만 싸고 좋은 땅을 구하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이미 건물이 지어져 있는곳은 값이 비싸구요. 제가 그동안 아마존에서 건축을 직접 해왔기 때문에 땅을 구하고 직접 건축을 하는것이 비용을 많이 절약할수 있어서 먼저 땅을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먼저 소개해 드린 땅은 사실 땅도 크고 가격도 비싸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신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적당히 좋은 곳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어느때와 같이 차를 몰고 이곳 저곳을 보러 다니다 코너에 위치한 좋은장소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표시되었는 전화번호로 복덕방과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땅의 사이즈는 대략 19 미터에 17 미터 정도이고 전체면적이 332 제곱미터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곳 동네 이름은 폴킬라스(forquilhas)이고, 주위는 사역하며 살아가기에 적당한 위치라고 보고 있습니다. 원래 이곳이 교회가 그렇게 많이 없는 지역이기도 하지만 이 동네 역시 아직 교회를 그렇게 많이 볼수 없었습니다.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많이 보였구요. 아마 제가 본 지역중 아이들과 청소년 상대로 체육선교와 제빵사역하기에 적합한 장소로 보였습니다. 이땅이 원래는 투자자들이 빌라는 지어서 월세를 받는 곳으로 시작했는데 시에서 이땅만 빌라를 못짓게 허가를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교회나 그외에 목적으로는 허가를 준다고 합니다. 어쩌면 이곳이 준비하신 땅이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이땅의 가격은 지금 시세로 육만불이 조금 넘고 있습니다. 브라질 헤알로는 370,000 헤알이고요. 이 시세도 지금 현재 시제이며 앞으로 매달 조금씩 오르고 있는 중입니다. 참고로 두달전에 본 땅가격이 지금 20000 헤알이 올라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를 앞으로 열매를 통해 간증하는 기회가 있기를 기도 합니다.

제가 처음 아마존에 갔었을때가 생각이 나네요. 아무것도 모르고 경험도 없이 갔다가 사역지가 없어서 길에서 시작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이 모일수 있는 장소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모이기에 힘쓰라고 하셨고 그때마다 모일수 있는 장소가 필요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청소년들을 위해서 제가 할수 있는 일을 할수 있는 장소를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던중 오늘 뜻밖에 이곳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마존에서 사역했던 곳보다는 작지만, 작아도 이곳에서도 충분히 복음은 전달되어야 합니다.

제가 먼저 땅을 구입하고자 하는 이유는, 제가 하는 사역이 먼저 장소가 허락이 되어야하는 상황입니다. 체육사역은 운동할수 있는 장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아이들을 초대를 하거나 운동을 같이하자고 말할때 어디서 하자가 중요한데 만약 장소가 없게되면 사실 현실적으로 아이들을 부를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마존에서 같이 사역하던 체육선교사 이스라엘 식구들도

이곳으로 데리고 와야 하기 때문에 그들이 살고 지낼수 있는곳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작지만 충분히 사역을 시작할수 있다고 봅니다.



이 사진에서 자세히 정중앙을 보시면 노란색으로 동그랗게 표시한곳이 제가 본 장소 입니다. 보시다 시피 이동네에서 정중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난 몇년간 산타카타리나에서 사역을 시작할수 있게 도움을 주신 분들을 통해 선교씨앗헌금을 모아 두고 있었습시다만 아직은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늘 기적같이 이뤄졌으므로 이번에도 믿고 기도하며 준비하려고 합니다. 늘 부족한 저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드리며, 이 편지를 보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2022 년 8 월 브라질 산타카타리나에서 싸울로 선교사 율림.

특별기도제목.

아마존에 남아 있는 현지인 사역자들이 저의 후임으로 파송오신 선교사님과 많이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심각한 상황까지도 갈수도 있을거 같아 많이 걱정됩니다. 아마존의 사역을 30 년 이상 해오면서 이땅의 주인은 아마존현지인들이여야 한다고 늘 기도했고 또 그들손에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 했습니다. 부디 서로가 잘 이해하고 선을 이루며 잘 해나아가길 기도 부탁드립니다.